

도로변에 쌓인 기름통에 ‘조마조마’ 신안 가거도에 주유소 좀 세워줘요

기름 가득 드럼통만 100여 개 사고 위험 높고 주민 불편 심해 오랜 요청에도 정부 묵묵부답 전남도, 국비 지원 건의키로



신안군 가거도 도로변에 쌓여있는 기름 저장 탱크. 별다른 안전시설조차 갖춰 놓지 않아 주민들은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가거도 주민 제공>

신안군 가거도 주민들은 섬 안에 있는 마을공원 인근 유류 보관탱크 앞길을 지날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어선 조업에 필요한 어업용 면세 경유와 화물차 운행에 쓰이는 일반 경유 수만 ℓ가 담긴 탱크와 드럼통 100여개가 별다른 안전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도로 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에는 흔하디 흔한 주유소 한 곳 없다보니 빚어지는 일이다.

가거도 주민들은 육지와 달리, 지하 저장 탱크가 없다보니 도로변에 탱크와 드럼통을 쌓아놓고 기름을 넣어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있다. 파란색 탱크 60여개에는 선주들이 사용할 어업용 면세 경유를 1000ℓ씩 담고 회색 드럼통 30여개는 화물차용 일반 경유를 담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가거도 주민들은 유류 수송선을 이용해 3개월마다 조업에 필요한 어업용 면세 경유와 화물차용 경유 등을 공급받아 개별적으로 탱크에 넣어놓고 사용중이다. 유류 수송선이 한 번 섬을 찾을 때 마다 공급받는 기름은 200드럼(1드럼 200ℓ)에 달한다.

가거도는 직선거리로 목포에서 147km 떨어진 갯벌로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섬. 그러나 태풍·풍랑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배가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어업용 면세유·일반 경유 전량 등을 감안해 3개월치 기름을 미리 주문하는 방식으로 공급받아 사용해왔다.

더구나 휘발유 보관 탱크는 아예 없다. 흑산도 등 큰 섬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는 선외기(1t 안팎의 소형 선박)가 많아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거도 주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주유소 하나 세워달라’는 오랜 요청에도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참고 버텨왔다며 하소연 한다. 주유소보다 몇 십배 큰 사업인 흑산공항 착공조차

10년 넘게 걸리는데, 3개 마을 288가구 406명이 사는 조그만 섬 주민들의 민원에 누가 귀를 기울여줬냐는 푸념도 나온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국토 끝섬 가거도항 유류저장 시설’ 사업을 내년도 국비 지원 건의 사업으로 선정할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가거도 항만배후지에 유류 저장시설(지하형 600㎡)과 주유 설비, 이른바 ‘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검토중이다.

신안군은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업

용 면세 경유와 면세용 휘발유, 일반 차량용 경유 등을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를 지어 수협을 통해 운영토록 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군은 주유소 운영비 손실분에 대한 지원 입장도 피력했다. 수협측도 최근 열린 회의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신안군·수협 등의 의견을 종합한 뒤 해양수산부에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업급여 수급 의심 10명 중 1명 ‘부정수급’

광주 고용노동청 55명 적발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

급이 의심되는 519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업급여 약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한 5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10% 이상이 부정수급자인 셈이다.

해의 체류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해외에 머물면서도 IP

우회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액 2억 40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부정수급액이 많거나 2회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점검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실업인정일과 해외체류기간, 병역의무복무기간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AI 교육원 신축 속도 낸다

설계 당선작 선정... 499억 투입 2026년 1월 개원

광주시교육청은 ‘(가칭) 광주AI교육원’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대표 박성환) 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당선작은 시교육청이 요구한 AI교육원의 방향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체험·교육·연구라는 다양한 기능을 층별로 충실하게 반영해 적절한 공간을 나누는 점도 두드러졌다. <조감도>



설계 공모 당선업체에는 13억여 원의 본 용역 설계권이 부여된다. 광주AI교육원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원하는 AI 체험 교육·연구 플랫폼이다. 연면적 9451㎡ 규모로 총 499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윤정일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광주AI교육원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봄철 산불예방’ 무등산 일부 탐방로 통제

15일~4월 30일 서석대~신선대갈림길 등 5곳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무등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37개의 출입을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등산 탐방로 구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통제구간은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공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등 5개 코스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제겐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 취약층 ‘휴일 공용차량 공유’ 재개

이달말 신청서 접수

광주지역 취약계층이 다음달부터 휴일 미운영 중인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3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공용차량 공유 사업’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중단된 이후 3년만이다.

공용차량 공유 사업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을 주말인 토·일요일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신청자들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유류비·통행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1103가정(4708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대상 차량은 K5-캐스퍼·모닝·카니발(승합차)·쏘울(전기차) 등 5개 차종 각 3대씩 총 15대로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대여기간은 연후나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정된 날짜에 광주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여러명이 동일 차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서로 우선 순위가 선정된다.

광주시는 이달 말 신청서를 받은 뒤 3월 첫째 주 주말부터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